

평화재단

The Peace Foundation
2019 Annual Report

2019 활동보고서

평화재단 2019 활동보고서
The Peac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9

CONTENTS

권두언 이사장 법륜스님	05
편집자의 글 사무총장 권영선	08

I. 평화재단이 걸어온 길 : 2004~2019	12
----------------------------------	----

II. 주요사업	17
----------------	----

1. 연구 활동	18
----------------	----

2. 조사 활동 : 2019 국민행복도 및 사회인식 조사	27
---------------------------------------	----

3. 교육 활동	29
----------------	----

4. 연대와 국민행복 활동	35
----------------------	----

III. 함께하는 사람들	49
---------------------	----

IV. 재정보고	55
----------------	----

평화재단과 함께하는 방법	57
---------------------	----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찾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잘 극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자발적 통제와 함께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검사, 추적, 치료 덕분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진단 키트 등의 방역 기술이 상당히 신뢰를 얻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늘 선진국 모방에 열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류, K-팝처럼 K-방역 나아가 한국의 평화를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격변하고 있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와 영향을 올바르게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과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의 비상사태는 안보가 주 원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보건 의료의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이 비상사태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 막히면서 노동의 이동이 중단되고, 해외에서 이민자 등 소수자들에게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역이민을 불러올 것이라 예상된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서 정부와 국가권력의 비대화를 국민들이 용인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곳곳에서 초법적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는 지자체장이나 정부를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하



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코로나19는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직접 대면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빠른 속도로 직장을 잃을 것이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적 이상이었는데 최근 세계 각국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시스템으로 보편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류가 차단되자 모든 물자들을 자국내에서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따라서, 노동력은 값비싼 임금을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동해왔지만 이제는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오히려 상당 기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본국 회귀를 고민하지만 국내는 고임금으로 생산단가가 높다. 정부에서 세금 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하더라도 기업의 고민을 해결해주진 못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에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남한의 개방적이고 높은 수준의 신뢰와 기술, 그리고 북한의 값싸고 성실한 노동력이 잘 결합한다면 한반도가 새로운 생산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엄청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게 평화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보다 북한의 불확실성이 더 높으니 북한의 안정, 남북관계의 안정, 확실한 평화보장이 중요하다. 평화가 전제된다면, 북한의 낮은 생산 단가와 한국이 갖는 신뢰와 기술이 담보될 때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다. 우리가 K-개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은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지지율 대비 의석이 너무 많아졌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만일 여당이 다수임을 믿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지도 모른다. 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정국이 극한 대



치로 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승자가 패자에게 굴욕감을 주기보다는 국민통합을 위한 포용정치를 편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 포용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공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내각으로 위임하고, 중앙권력의 지방 이전, 헌법개정과 승자독식의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2020. 6. 29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우리는 계속 도전할 것이다

2020년 신입 사무총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고보니 ‘함께하기’의 소중함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비전은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갈 때 전면화되고 보편화됩니다. 사람들은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기에 자기 문제에 동참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스스로의 존재감도 높아집니다.

2019년은 평화재단이 새로운 시도를 실험해 본지 2년째입니다. 그것은 행복학교 실험입니다. 행복학교는 1997년 IMF의 금모으기 운동, 2007년 태안 기름제거에 나선 자원봉사물결, K-한류, K-방역의 기적을 이끌어낸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 한반도 평화통일에서도 발휘되었으면 하는 노력이자 실천입니다.

본래 2019년 애뉴얼 리포트는 2020년 2월에 완성해서 3월에 발간되어야 했습니다. 올해는 COVID-19로 인해 재단의 사업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 비전을 검토하려던 일정이 5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상반기도 막바지여서 더 미룰 수 없어, 이제라도 2019년 애뉴얼리포트를 지난 한해의 사업 성과에 집중해서 정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21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정치는 시대 정신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COVID-19와 함께 시대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시대정신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들, 높은 실업률, 고령화, 교육불평등, 경제양극화 어느 것 하나 해법이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여기에 분단극복과 전쟁의 종식, 평화체제의 정착이라는 복합적 난제를 안고있는 우리에게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의외의 복병까지 더해졌습



니다. 첩첩산중에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얼키고 설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지녔지만 더 큰 불안을 느끼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려면 경제성장이나 민주화 같은 과거의 획일화된 시대 정신이 아니라 다양해진 새로운 시대정신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인터스텔라’의 유명한 대사와 같이 우리는 위기를 겪을 때마다 돌파해온 것처럼 다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영국 시인 딜런 토마스(Dylan Thomas)의 시 구절은 현대 문명의 끝에 서서 새로운 비전을 찾아나서야 하는 우리에게 계속 도전할 것을 일깨웁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시오.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꺼져가는 빛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 민간영역의 등불이자 나침반 역할을 자임해온 평화재단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새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평화재단을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17~2019년 3년간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해준 이승용 전 사무총장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 6. 29

사무총장 권영선

평화재단은 한반도에 평화를, 나아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합니다.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 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 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 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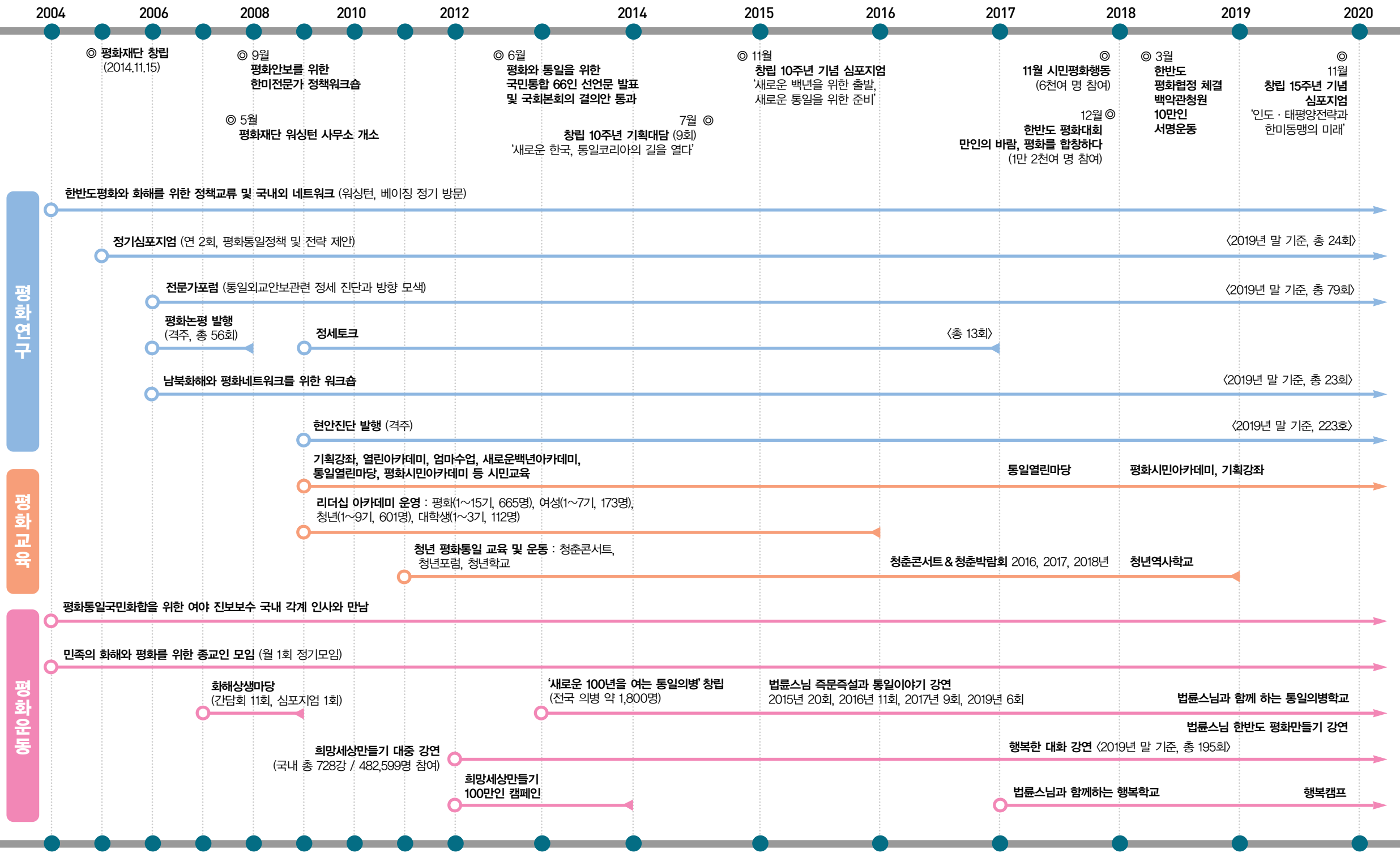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협정 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I. 평화재단 15주년, 평화재단이 걸어온 길 : 2004~2019



글로벌 평화 캠페인

- 2018.0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백악관 청원 10만인 서명운동 (총 서명인원 111,791명)
- 2017.12 2017 한반도평화대회 (1만 2천여명 참여) '만인의 바람 평화를 합창하다'
- 2017.11 트럼프 방한즈음 시민평화행동 (6천여명 참여)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평화 피켓 릴레이 47일간, 전국 104개 지역 총 1,633회 (3,297명 참여) 평화촛불집회 국내 7개 지역, 6주간 토요일, 40여 회 진행 (7,377명 참여) 해외 8개국 26개 지역, 36회 진행 (298명 참여)
- 2013.06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회의' 결성 (100여명 동참)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66인 선언문 발표 및 국회본회의 결의안 통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 2019.06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종교인 긴급 호소문" 발표
- 2017.11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방지를 기원하는 종교·사회·정치원로 시국선언
- 2016.02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평화와 화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
- 2014.07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토론회
- 2013.08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 :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 2011.04 생명과 평화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
- 2010.08 북녘동포를 위한 밀가루 300톤 지원 및 종교인 9인 개성방문
- 2010.06 남북정상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 2008.10 북한주민을 위한 긴급식량 20만톤의 인도적 지원과 북한경제개발 기금으로 정부예산 1% 사용을 촉구하는 100만인 국민서명 전달식 및 결과보고회
- 2008.06 북한주민 아사를 막기 위한 식량 20만톤 긴급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호소문 발표
- 2008.05~10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135,141명 서명)

해외 교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일강연

- 2019년 총 10강 (2,728명 참가)
- 2018년 총 5강 (1,743명 참가)
- 2017년 총 41강 (7,749명 참가)
- 2016년 총 21강 (6,206명 참가)
- 2014년 115개 도시, 총 115강 (18,573명 참가)
- 2013년 총 48강 (12,455명 참가)
- 2009~2012년 총 77강 (23,000여명 참가)

주요 정책 제안

- 2019년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 2018년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한국의 외교전략'
-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 2016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 2015년 '광복70주년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위한 실천 전략'
- 2014년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
- 2013년 '한국 경제의 돌파구, 남북관계 정상화에서 찾는다'
- 2012년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방향'
- 2011년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과 전략 로드맵 :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상생프로세스'
- 2010년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포괄적 안보교환을 제안한다'
- 2009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화해상생통일론'
- 2008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오바마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안'
- 2007년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통일정책의 과제'
- 2005년 '햇볕정책을 넘어 평화로 통일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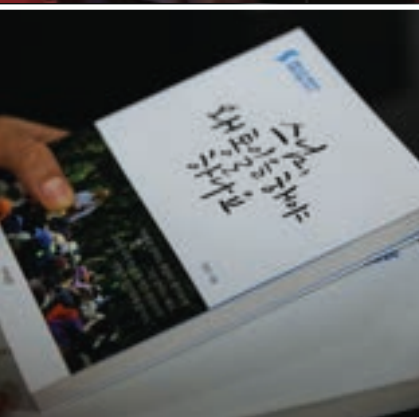
단행본 발간

- 2019.12 『비핵화의 진통, 흔들리는 평화』 평재리
- 2019.02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우리의 전략』 평재리
- 2018.11 『새로운 100년』 개정증보판. 오마이북
- 2017.06 『촛불 이후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평재리
- 2015.12 『현안진단 2015』 평재리
- 2013.02 『현안진단 2013』 평재리
- 2012.11 『쟁점을 파하다』 한겨레 출판
- 2012.05 『새로운 100년』 오마이북



▲ 2018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백악관 청원 10만명 서명운동 ▲ 2017 한반도평화대회

Ⅱ. 주요사업



1. 연구활동

2019년 희망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모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중단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은둔에서 벗어나 세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북·미 비핵화 협상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해결 방법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일정한 외교공간을 확보했으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감을 이루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 위원장 모두 협상국면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북한처럼 핵 물질과 운반수단 생산체계를 갖춘 핵능력 국가의 비핵화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북한이 체제의 명운을 걸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난항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평화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 심포지엄 '동아시아 평화의 기회와 도전' 2019. 6. 7.



▲ 제78차 전문가포럼 2019. 2. 20.

2019년에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며 집단지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현안진단>은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과 우리의 외교안보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동아시아 평화의 기회와 도전'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심도 깊은 연구와 전망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문가포럼, 워크숍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다루었고 정기적인 전문가모임을 통해 북한의 현실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들의 여론조사를 요점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 동향을 공유하였다.



▲ 제79차 전문가포럼 2019. 10. 24.



현안진단

〈현안진단〉은 2009년부터 격주 1회 발행하고 있다.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과 외교안보 과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핵화의 진통, 흔들리는 평화

2019년 현안진단 시리즈 책자 발간

외교안보 분야의 합리적 집단지성을 기초로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담은 현안진단을 모아 책자로 엮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하면서 평화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구독 안내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과 외교안보 과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주는 현안진단을 정기 구독하세요.

구독방법 평화재단 대표메일 staff@pf.or.kr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2019년 발행목록

호수	발행일시	주제
202	2019.01.04	2019 북한, 비핵화에 속도전의 깃발을 들어라
203	2019.01.20	북한의 '선도적 비핵화' 가 답이다
204	2019.02.01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205	2019.02.18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은 무엇인가
206	2019.03.06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속
207	2019.03.25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다시 한번 진검승부에 나설 때다
208	2019.04.07	북한이 명심해야 할 하노이의 교훈
209	2019.04.20	12월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210	2019.05.08	일본의 레이와 시대 개막과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론
211	2019.05.21	지금 북한에 필요한 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 다
212	2019.06.05	북한 경제에 제재가 도전인가, 제재 해제가 도전인가
213	2019.06.16	비핵화의 '새로운 섀넌' 을 모색할 때다
214	2019.07.01	이제는 진정한 당사자로 나설 때다
215	2019.07.18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16	2019.08.05	일본의 경제도발을 1965년 체제 극복의 계기로 삼자
217	2019.09.04	격랑의 한반도, 우리가 주도하는 외교·안보의 길을 가자
218	2019.09.19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우리의 역할
219	2019.10.03	공동대처가 시급한 축산안보
220	2019.11.03	김정은 위원장의 섀넌법과 남북관계 '새판 짜기' 의 모색
221	2019.12.03	북한주민 추방 사건의 적절성 논란과 과제
222	2019.12.09	한반도 평화전략으로 보는 지소미아 사태의 복기
223	2019.12.19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위한 제언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및 전략제안을 위해 매년 2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회 진행했다.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 평화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2019년 11월 15일 (금) 14시~18시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부 :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미·중의 경쟁구도

사 회 김기정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1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동아시아 박원근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교수)

발표 2 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동아시아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토 론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2부 : 한미안보협력의 현재와 미래

사 회 박건영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발표 1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발표 2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허와 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토 론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정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의 패권경쟁 심화는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통합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 결합도가 높으면서 안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America First' 전략은 동맹에 대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집중 논의해보았다.

1부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미·중의 경쟁구도

한동대 박원근 교수는 “트럼프 대외정책의 기초에는 비용 대 효과를 따지며 더 이상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던 안보 공공재의 비용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과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 증대를 거칠게 요구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개인의 이타이 아닌 미국의 대전략 변화로 향후 ‘트럼프즘’으로 고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대 중국 관계도 단순한 견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확실히 막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 단독이 아닌 역내 동맹국과 우호국의 적극 동참을 통해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 규범과의 충돌, 역내 국가의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의 어려움, 여전히 모호한 실제 이행 전략 등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보다 자주, 강화될 것이므로 나름의 국

가 대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현재 거의 동맹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가져오는 지정학적 구도에서 볼 때 중·러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중·러 관계에서 중국이 갈수록 ‘형님’ 노릇을 하는 것에 러시아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다고 이 관계를 깰만한 더 좋은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을 ‘기울고 있는 대국’으로 본다. 이는 왜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밀리면서도 중국이 ‘항복’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중국은 ‘시간은 중국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유의미한 동시에 유한적이다. 러시아는 극동지방에서 중국의 독보적인 경제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 투자를 환영하지만,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측면에서는 결국 중국을 따라 투표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래 패권경쟁이라고 볼 때, 미중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은 단기 과제가 아닐 것이다. 한국이 그런 도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을 소개했다.

강원대 정구연 교수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장세호 연구위원의 토론과 청중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외교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부 한미안보협력의 현재와 미래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초빙교수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한미동맹의 미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조성렬 박사는, “한미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으로 여겼는데, 최근에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박을 보면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은 화해 협력 분위기보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집단적 방위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 집단안보조직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 일단은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또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며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소개했다.

남기정 교수는 “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유엔사라는 3각 함수는, 역사-경제-안보라는 3차원의 쟁점영역과 한·미·일이라는 3각 구도 속에서 ‘북한 비핵화-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평화유지군’ 문제라는 새로운 3각 함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최적해법이 마련될 것이다.”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문제점과 과제를 소개했다.

토론에서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현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어떻게 동맹을 이원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요즘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과 정책은 무엇인가?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한반도 비핵시대 창설을 얘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정환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게 무역 합의를 제일 먼저 해준 나라가 우리고 에너지 부분, 인프라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의 프레임 속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고 사드도 배치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이 뭔가 동맹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반대로 일본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등 중국에 접근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문제 삼지 않는데, 이런 점은 일본 외교가 갖는 특이한 점이다.”라고 언급했다.

패널과 청중의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고, 2부 사회자 기톨릭대 박건



영 교수는, “지금은 2019년이다. 우리가 백 년 전에는 세상을 잘 몰라서 일본에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100년 전처럼 무지한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깨닫고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 위험성,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안보 멘탈리티를 살펴봐야 한다. 평화재단 등 시민단체에서 현실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살펴보고, 불일치가 있다면 그걸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평화재단은 시민단체고 시민들의 힘을 결집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로 2부를 마무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재단 법률 이사장의 닫는 말이 있었다. “평화재단이 창립된 지 올해로 15년째가 되었다. 지난 15년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한반도 평화라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김형기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평화재단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도움 되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

2. 조사활동

국민행복도 및 사회인식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2019년 행복지수’는 평소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정치, 안전, 사회정의, 건강과 보건의, 자기개발을 합산한 점수로 5점 만점에 3.08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연령,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3.18점)와 70세 이상(3.10점)이 40대(3.06점)와 50대(3.05점), 60대(3.04점)보다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행복지수는 3.17점인데 비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행복지수는 3.00점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행복지수를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 건강보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평소에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사회 분배와 정의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왔고, 이는 보수적인 성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차, 도로교통문제(18.4%), 지역 내 일자리 창출(18.1%)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경기·인천 등의 지역은 교통문제의 비율이 높았고,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등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비율이 높았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더 강도를 세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30.0%, 현재 수준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26.0%,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이 16.3%, 처음부터 별로 필요없는 일이었다는 의견이 6.9%로 국민들의 절반은 적폐청산이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는 41.6%는 필요하다고 응답, 29.3%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에 대해 81.1%가 찬성하고 있지만 통일기금 조성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50.8%만이 찬성하였다. 특히 통일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41.2%는 통일기금을 위한 세금 인상을 반대하였다. 통일에 찬성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가장 높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부담이었다. 20대~30대는,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거나 민주주의 지수 등은 높지만, 통일에 대해서는 보수성향을 보여 60대 이상과 비슷했다. 자세히 보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찬성비율도 낮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보다는 두 개의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 청년층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사회정의와 분배균형을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정부 및 사회단체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를 위한 세심한 노력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대응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평화재단 발간도서



동아시아 신안보질서와 우리의 전략

평화재단에서는 가속도가 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총체적 변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신안보질서를 키워드로 연구 논의의 과정을 가졌다. 8가지 주제를 다룬 각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한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묶어 보았다.

- 발행일 : 2019년 2월 20일

3. 교육활동

2019년은 60년 만에 북미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일회성 이벤트가 끝난 이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다. 또한 대한민국은 1년 내내 한일무역분쟁, 검찰개혁, 연이은 부동산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강원도 산불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BTS와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은 희망을 꿈꾸게 한다.

평화재단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조망하고자, 미래문명의 패러다임 전환, 통일코리아의 실현과 프로세스, 대한민국 리모델링이라는 평화재단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일반 시민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평화시민아카데미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적 관점으로 본 역사의 한 장면

기존 강좌와 차별성을 갖는 예술과 역사의 만남을 시도해보았다. '예술적 관점으로 본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주제로 시, 사진, 소설, 영화 등으로 역사를 생각해본 시간들이었다. 시인, 사진작가, 문학평론가,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역사는 매우 새로웠다. 4번의 강의와 함께 마련된 전쟁기념관 현장탐방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했다.

03.07	3.1운동 100주년, 저항시 산책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03.14	분단역사의 현장, DMZ의 빛과 그림자	이시우 (사진작가)
03.22	소설로 보는 한국근현대사	류보선 (문학평론가)
03.23	현장탐방 : 전쟁기념관	이승용 (평화재단 사무총장)
03.28	영화로 보는 미래 상상력	최광희 (영화평론가)

아시아 시대, 동남아를 새로 보자!

북미정상이 만난 하노이회담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강좌로 연결했다. 중국을 넘어, 아시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화교네트워크, 인도를 포함하는 동남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

04.25	한반도의 미래, 중국을 넘어 동남아로	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위원장)
05.02	호치민 정신과 베트남의 외교노선	유인선 (전 서울대동양사학과 교수)
05.09	동남아를 움직이는 화교네트워크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연구원)
05.16	모디노믹스와 13억의 인도	오화석 (인도경제연구소 소장)

차별에서 다름으로 '모자이크 사회'를 꿈꾸다

유독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게 느껴졌던 2019년,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치닫게 된 것은 역사에 대한 관점과 사회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도 분열이 심각하고, 상호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에 차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모자이크 사회'를 추구하는 새로운 관점을 강조한 강좌는 참가자들에게 유용하면서도 큰 힘이 되었다.

09.19	난민을 보는 두가지 시선	홍세화 (난민인권센터 고문)
09.26	내가 남자라면? 당신이 여자라면?	김여진 (연기자)
10.04	모자이크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한국경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희망이 없다고 한다. 진짜 희망이 없는 걸까? 다양한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경제를 전망해 보았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고 수축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제와 '그래도 불평등을 넘어 아직까지는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나누어진 자리였다.

11.19	향후 5년이 수축사회를 준비할 골든타임	홍성국 (수축사회 저자)
11.26	불평등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성장 플랫폼으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12.03	미래기술의 핵심, 반도체의 전망	노근창 (현대자동차 리서치센터장)
12.10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의 전망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이재 "한반도의 미래, 중국을 넘어 동남아로" 2019.4.25.



홍성국 "향후 5년이 수축사회를 준비할 골든타임" ▲ 2019.11.19.

기획강좌

한일관계의 과거 100년, 새로운 100년

한일무역분쟁은 NO아베운동, 일본제품 및 일본여행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일본과의 역사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이 국면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획강좌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한일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누적이지만 이제 한일 공동으로 1965년 체제를 넘어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망을 갖고 준비되었다.

09.03	과거100년 : 식민과 전쟁의 동아시아와 한일 1965년 체제의 형성
09.10	새로운100년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 1965년 체제의 극복
강사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기획강좌 돌아보기

[새로운100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일 1965년 체제의 극복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일본의 한국 화이트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이 커다란 이슈였던 2019년 9월 초,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를 초청하여 지난 10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강의를 2강에 걸쳐 진행했다.

남기정 교수는 현재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은 지난 100년간 한일관계의 역사적인 필연이자,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따른 지정학적 필연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지정학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그동안 북미간의 적대관계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이익을 누려왔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일본은 새로 조성되는 동아시아 질서가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최근 이를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진 반면, 후발 국가였던 한국이 차이를 좁혀오는 것에 대한 견제심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일관계는 일제 강점과 광복 이후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했음에도 이들 조약과 협정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 때문에 늘 흔들려왔다. 당시 일본은 한국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국에 경제협력자금을 제공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의 의사에 반한 불법 강점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이 당시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공한 자금은 일제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청구권 협정



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민사상의 피해에 해당되는 것일 뿐, 불법 식민지배 하에서 이뤄졌던 강제동원 등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의 이런 입장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나타나자 일본은 가뜩이나 입지가 약해지던 대 한반도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마침내 한국의 주력 산업 소재 부품 3가지 종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된 것이다.

남기정 교수는 한일 무역전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적 책임배상은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이끌어내되,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에 더해 국내적 노력을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일제 강점의 피해자 구제는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에서 일본의 역할을 견인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중재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야당과 시민사회를 살펴보면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배상하기 위해서 기존 협정을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소수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안부·강제동원 관련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제 3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4. 연대와 국민행복 활동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1997년 이후 대북지원과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펼쳐온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모임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캠페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 목사), 박남수 (천도교 전 교령), 김홍진 (천주교서울대교구 신부),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법륜스님, 김대선 (원불교 교무), 박경조 (성공회 주교)



3.1운동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만들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약칭 종교인 모임)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며 2018년부터 함께 준비해 온 3·1절 기념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기념 주간 동안에는 천도교와 개신교, 불교 등 각 종단마다 3·1절을 즈음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였고, 평화재단도 연대 활동 차원에서 2월 27일 기념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각 종교계 종단별로 진행되던 기념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3월 1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공동 기념 대회로 승화되었다. 한편 100년 전 종교인들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미래 100년까지 계승해 나가기 위해 3월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종합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다시 종교인들은 ‘3·1운동의 미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함께 해 나갔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은 3·1운동의 의의를 살려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분열되기 쉬운 국론을 통합해 나가는 국민통합의 정신을 살려나가자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2019.3.1.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론회

독립운동가 백용성

잊혀진 백년의 진실: 태극기 사용과 대한민국 국호 탄생의 배경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14:00 ~ 13:00

장소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주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 평화재단, 사단법인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00년 전 전국 방방곡곡으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졌다. 당시 3·1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200만 명, 체포 구금된 사람들은 4만 7천 명에 달했으나 기억되는 사람보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사람들이 더 많다.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용성스님(1864~1940)의 잊혀진 진실을 밝히고자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용성스님의 독립운동의 업적을 집중 조명했는데 아래에 소개한 용성스님의 두가지 유훈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 하나는 국민통합의 길이다. 용성스님은 조선 사람들이 밀정이 되어 배반하고, 민족지도자들이 친일파가 되어 창씨 개명을 선동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사분오열의 과보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유훈을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결과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진되고 있다.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의 길이다. 용성스님은 ‘강대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주인다운 주인국이 되라’고 유훈을 남겼다. 진정한 독립, 주인다운 주인국이 되는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 독립운동가 백용성 잊혀진 100년의 진실 중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일시 2019년 3월 1일(금) 13:30 ~ 16:00

장소 종로 천도교 중앙대교당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법륜스님은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며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100년, 1000년의 꿈을 실현하고자 강조하였다. 아래 내용은 기념사 중에서 일부를 발췌하였다.

3·1운동 정신의 첫 번째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독립정신입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해방을 맞았지만 그 해방을 도운 강대국들이 우리를 분할 점령했고, 그에 협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의 두 번째는 민(民)이 주인 되는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3·1운동은 민(民)이 주인이 되어 일어났지만, 그 후 남한 정부와 북한 정





부는 민(民)에 바탕을 두고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교 기독교 불교 세 종교와 전 국민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3·1운동을 일으켰지만, 해방 정국에서 국론은 사분오열 났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나라가 분단된 것을 넘어서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100년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은 미완성의 독립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둘째, 통일을 이뤄가는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다양한 국민을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과거 원한을 씻고 협력해 통일 한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1세기 말에는 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만약 통일 한국이 아시아 시대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100년의 한을 풀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발해 멸망 이후 1000년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했으면 합니다.

강연회 ‘한반도 평화만들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은 매년 전국 대중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비롯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의 진단과 해법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법륜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만날 수 있다.

상반기 2019년 4월 2일(화) ~ 6월 13일(목)

하반기 2019년 9월 24일(화) ~ 11월 28일(목)



통일은 성장을 위한 우리 미래의 밥그릇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우리 나라는 절대 빈곤에서 산업화를 거쳐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독재 시대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 세대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헬 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도 필요하지만 성장보다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분배정책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한 편이지만, 선출된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아직 덜 갖추어진 반쪽의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할 것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전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궈놓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붕괴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궈놓은 것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절대로 안 되며, 평화를 지킨다는 입장을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진보, 보수, 여, 야 관계없이 앞으로 더 완전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남북이 양 강대국의 하위 변수로 휩쓸리지 않으려면 남북이 화해를 해야 하고, 정치 군사적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화 유지, 자유 왕래, 교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을 우선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경제가 좀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은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지금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길도 있지만, 보다 쉬운 길은 바로 남북 경제협력입니다. 정치적 통일보다, 북한과 힘을 합쳐 남북 공동 경제를 운영하는 경제적 통일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결합한다면 성장률을 지금보다 1~2퍼센트 더 끌어올릴 수 있고 남북한 양쪽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통일은 청년세대의 이익과도 관계가 있는 것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통일은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좀더 성장하기 위해 보수, 진보 상관없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개발에 소요되는 ‘통일 비용’이나 인도주의적 지원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단은 우리에게 큰 질곡이었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전을 자각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일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통일은 뒤로 미루어도 되지만, 제일 급한 건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국 경제에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 통일코리아가 일본과 협력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하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것이 새로운 100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전반기인 향후 30년 안에 사실상의 통일을 이뤄내고, 그 다음 21세기 중반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면, 한 세기가 지난 뒤에 세계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올 때 우리가 그 중심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발해 멸망 이후 잃어버린 1000년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의 꿈이 아니라 1000년의 꿈입니다.

- 한반도 평화 만들기' 대전서구청 강의 중에서 (2019. 5. 22)



2019년 강연 일정표

일시	지역	장소	일시	지역	장소
4/2(화)19:00	서대문	은평구청 은평홀 본관 5층 (430석)	9/24(화)19:00	서울	영등포 아트홀 (520석)
4/3(수)19:00	음성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당 (434석)	9/25(수)19:00	목포	남도소리올림터 (558석)
4/4(목)19:00	대구	수성대 성요셉관 대강당 (600석)	9/26(목)19:00	울진	울진연호문화센터 (736석)
4/9(화)19:00	일산	고양 어울림극장(덕양) (1,290석)	10/2(수)19:00	강남	강남구민회관 (512석)
4/10(수)19:00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715석)	10/8(화)19:00	경기	남한산성아트홀 (1,026석)
4/11(목)19:00	부산	남구청 대강당 (350석)	10/10(목)19:00	진주	경상대 컨벤션센터 (1,046석)
4/16(화)10:30	성남	성남시청 온누리홀 (588석)	10/14(월)19:00	청주	청주 예술의 전당 (1,508석)
4/16(화)19:00	양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684석)	10/15(화)19:00	인천	동구주민행복센터 (704석)
4/17(수)19:00	세종	세종정부청사 대강당 (624석)	10/16(수)19: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000석)
4/18(목)19:00	마산	MBC경남 (1,172석)	10/17(목)19:00	부산	부산KBS홀 (2,847석)
4/23(화)19:00	여주	여주세종극약당 (403석)	10/23(수)19:00	전주	전북도청 (932석)
4/24(수)19:00	제천	제천문화회관 (654석)	10/24(목)10:30	창원	경남도청 대강당 (700석)
4/25(목)19:00	경주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485석)	10/24(목)19:00	울산	울산KBS홀 (1,800석)
4/30(화)19:00	안양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1,126석)	10/29(화)19:30	대전	정심홀 (1,817석)
5/2(목)10:30	거제	하나로컨벤션 (474석)	10/30(수)19:00	양평	군민회관 (379석)
5/7(화)19:00	강릉	강릉단오문화관 (453석)	10/31(목)19:00	대구	대구과학대아트홀 (1,750석)
5/8(수)19:00	순천	건강문화센터 (419석)	11/4(월)19:00	광진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2,434석)
5/9(목)19:00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648석)	11/5(화)19:00	안양	안양시청강당 (772석)
5/21(화)19:00	광진구	광진나루아트센터 (601석)	11/6(수)19:00	성남	성남아트센터 (1,758석)
5/22(수)10:30	부천	부천시청 2층 (529석)	11/7(목)19:00	김해	김해문화의전당 (1,190석)
5/23(목)19:00	부산	부산진구청 (406석)	11/12(화)19:00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1,277석)
5/28(화)19:00	인천	계양문화회관 (791석)	11/13(수)10:30	일산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1,200석)
5/29(수)19:00	구미	금오공대 대강당 (700석)	11/14(목)19:00	포항	포항시청 대집홀 (590석)
5/30(목)19:00	울산	상공회의소 (456석)	11/20(수)19:00	천안	천안시청 봉서홀 (1,051석)
6/5(수)19:00	대구	서구구민회관 (442석)	11/21(목)19:00	부산	사하구청 (560석)
6/11(화)19:00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608석)			
6/12(수)10:30	수원	수원시청 (378석)			
6/13(목)19:00	부산	부산시청 (700석)			

평화를 준비하는 시민학습모임 : 행복학교

한국사회는 지난 70년간 압축 성장을 했으나,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편이다. 국민행복도를 높이는 세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사회로,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평화재단은 국민행복도를 높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나아가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시민학습모임으로 행복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체험에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행복으로 확산하는 '행복학교'는 지금도 실험중이다.

행복은 배우고 고민은 날려버리는 온라인행복학교

온라인행복학교는 “즉문즉설로 살아보기” 모임이다. 행복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다. 즉문즉설을 듣는 온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대국민 서비스 운동이며,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 참여하고 있다.

행복시민이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행복시민모임

행복시민모임은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마음공부와 더불어 내가 사는 동네와 지역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지속적인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자율적, 민주적 운영을 지향한다.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캠프

행복캠프는 전국의 행복학교 진행자와 참가자, 행복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만남의 장이다. 법륜스님의 즉문즉설과 함께, 행복시민의 공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행복학교 문의 <http://hihappyschool.com/>



신년기획 국민행복도 및 사회인식 조사

평화재단은 기획특집으로 국민들의 행복, 지역사회, 정치, 통일 등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학술 목적으로 조사기관 더리서치(The Research)에 의뢰하여 2019년 1월 19일(토)부터 26일(토)까지 1주일 간 대면 면접조사로 「2019년 국민행복도 및 사회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행복지수 5점 만점에 3.08점, 정치성향에 따라 행복도 달라

조사대상 :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조사표본 : 2,107명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
 조사기간 : 2019년 1월 19일(토) ~ 1월 26일(토)

조사내용

행복지수	사회인식	정치인식	통일인식
평소 행복	대한민국 미래	최우선 국정과제	통일 찬반/이유
정치 만족	교육 개혁	적폐청산 평가	통일기금 찬반
안전 만족	환경 실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평화협정 찬반/이유
사회정의 만족	지역 과제	보수대통합	평화협정 반대국가
건강/보건 만족	인권 지수	공유경제 도입	주한미군 철수
자기개발 만족	평등 난민수용	경제개혁 과제	향후 남북관계 전망
세대별 걱정거리	환경 지수		통일 시기
	환경보호 일회용품쓰레기		통일 지수
	민주 주의 지수		비용 통일추진정부
	국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국민 통합
	정치 참여 지수		국제 관계
	투표 참여 주민자치 참여 집회시위 참여		

Ⅲ. 함께하는 사람들

자원활동가 소개

평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상근자, 자원봉사자와 연구위원들은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통일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윤여준 (사)나를 만나는 숲 상임대표
 도 법 실상사 회주
 스티븐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감사

김기진 사단법인 JTS 대표,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여영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이사장

법 른 정토회 지도법사

이사

김홍신 소설가,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조 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 원장
 추원서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조성식 포스코에너지 전 상임고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권영선 평화재단 기획위원장
 오윤석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사무총장

이승용 (2017~2019)

연구위원 (가나다순)

고경빈 평화재단 연구위원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동용승 굿퍼머스연구소 소장
 이정철 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 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지원

김호정 박경미 남미영 진미란 문희수
 김지수 이옥숙 이상연 김진옥 김상은
 안명애

교육지원

곽윤경 권지웅 김성숙 류민희 박미정
 박용균 임은희 전효진 정운진 하태철

사무지원

이광희 김영미 이영수 윤영화 이희숙
 이상희 권경숙 권인숙



앞줄 맨 우측에서 시계방향으로

김형기, 법륜(이사장), 윤여준, 김홍신, 이승용, 김기진, 조성식, 권영선, 조민, 조성렬, 오윤석



이승용, 김두수, 송치현, 권영선, 구자웅, 박영숙 (첫째줄 왼쪽부터)
 김기숙, 백왕순, 최병현, 유미경, 이영재 (둘째줄 왼쪽부터)
 서민정, 이원경, 강주희, 김은경, 이새롬, 박정태 (맨 뒷줄 왼쪽부터)

자원봉사자 인터뷰

● 어떤 계기로 평화재단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나요

‘할머님들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밀양에 송전탑은 왜 안 치우는 걸까?’ ‘원자력 발전소가 저렇게 위험한데 왜 더 짓는 걸까?’ ‘북극곰이 죽고, 빙하가 녹는다는데 왜 다함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 하지?’ ‘다른 거 다 떠나 북한에 우리 민족들이 굶어 죽어간다는데 왜 안 돕지?’ ‘가슴 아픈 우리 역사 5.18은 해마다 추모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벌을 안 받지?’ ‘가정과 사회에서의 폭력과 권위로부터 다수의 여성과 아이들은 언제까지 자유롭지 못할까?’ ‘나는 내 나라가 참 좋고, 멋지고, 자랑스러운데 반대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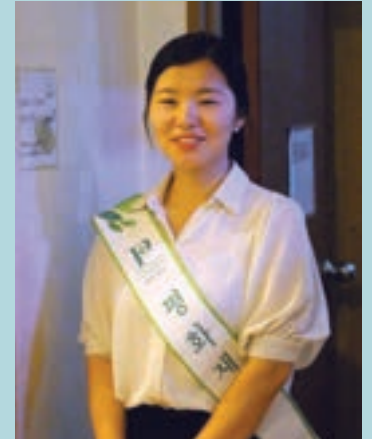
나의 끝없는 오지랖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의식과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그 호기심을 채우려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엔가 내가 보고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한 번씩 의심해 보고, 달리 생각해 보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장르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가 내가 사는 세상이 점점 나의 상식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로 만연해졌고, 그런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동참하고 싶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평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리더십아카데미’ 8기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되었다. 환경, 인권, 역사, 정치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청년들과 토론하는 10주 프로그램이었다. 교육 후에도

후속모임을 이어갔고, 그렇게 평화재단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고 ‘동북아역사기행’에도 참여하면서 민족의 자부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 평화재단에서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나요?

평화재단에서의 봉사활동은 청춘콘서트, 특강 스태프 외 주로 교육강좌 진행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각종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접수, 운영 등의 역할이 주어지면 참여한다. 재단에서는 시국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 강사진들의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강의도 듣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야말로 ‘꿀봉사’다.



정운진
(평화재단에서 행사 안내를 하는 모습)

●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지쳐 몸과 마음이 게을러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다소 어렵다 느껴지는 주제의 강의에 봉사활동을 가면 어김없이 그 분야에 눈이 뜨이고, 무릎을 탁 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도 시켜주는 평화재단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다.

평화재단을 통해 맺어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고마움으로 인한 몽클했던 기억들이 많다. 과거 청춘콘서트를 하면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모습에 서로 수고했다, 고맙다고 격려해주었던 기억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낯선 수강생들과의 반가운 만남도 좋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고, 비슷한 부분에 물음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음이 신기하고, 몽클하다. 소소한 만남과 거기에서 오는 감동은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내 가치관과 이어진다. 그래서 평화재단 봉사활동 중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 알게 된 강사들이 사회 어딘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때, 무척 행복하고 좋다. 나도 더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점들이 평화재단에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다.

● 평화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첫째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고, 두 번째는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평화재단의 비전이다.

첫째, '역사'를 키워드로 하는 정규 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면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미래를 살아갈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한다. 초등교육 이전부터 부모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평화재단에서 '역사'를 주제로 연령별, 대상별 교육이나 여행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탐구해 보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 평화재단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이상적인 개인적 바람이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키워드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재단이 한반도와 국제평화, 통일에 관련해서는 가장 선두적이고, 진취적인 단체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평화재단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고, '브랜드화' 되어 재단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 연구 사업들이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권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19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

(단위 : 원)

계정과목	2019년 결산	내역
후원금	1,103,562,698	정기, 일시, 지정후원회원 회비
교육수강료	8,454,567	열린아카데미 수강료
모금수입	123,161,832	행복강연모금
기타수입	58,911,764	기타
수입계	1,294,090,861	

지출

(단위 : 원)

계정과목	2019년 결산	내역
목적사업비 ①	교육수익사업	8,569,140 열린아카데미, 기획강좌 외
	연구사업	35,934,854 심포지엄(상, 하), 현안진단, 전문가포럼, 전문가콜로키움, 워크숍 외
	평화운동사업	244,120,156 행복강연, 행복학교, 조사사업, 평화네트워크협력사업 외
	홍보비	7,992,510 홈페이지 관리, 후원회원관리
	소계	296,616,660
경상비 ②	운영경상비	333,392,770 임차료, 건물관리비, 사무운영비
	소계	333,392,770
지출계 (①+②)	630,009,430	
차년도사업이월금 ③	664,081,431	차년도 사업 준비금
지출합계 (①+②+③)	1,294,090,861	

평화재단과 함께하는 방법



회원가입

“통일은 내일? 통일은 내 일!”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통일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족, 직장동료, 주변 지인들에게 회원가입을 권유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후원회원 가입 www.pf.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484201-01-154897 재단법인 평화재단

후원회원이 되면 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포럼, 심포지엄, 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친구 맺기

후원신청 및 정보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 강연과 행사일정 등을 카톡으로 안내합니다. 평화재단과 카톡친구를 맺으면 평화재단 활동소식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정기 구독

유튜브 채널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TV' 정기 구독, 함께 해요.

법륜스님은 인생의 고뇌와 아픔, 사회의 혼란과 난제, 시대의 흐름과 미래 전망 그 어떤 질문에도 찰떡같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TV'에서 행복한 인생을 체험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보세요.



- 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 미래 사회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법륜스님의 문제진단과 해법을 들었습니다.
- 브이로그 스님의 하루** 법륜스님의 소소한 일상을 영상으로 만납니다.
- 찾아슈쟁점을 파하다** 논쟁적인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화쟁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륜스님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법륜사전** 정의, 평화, 인생, 행복 등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저마다 다르게 사용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법륜스님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스님의 혜안이 담긴 언어 사전을 확인해봅니다.

The Peac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9
평화재단 2019 활동보고서

펴낸날 2020. 6. 29

펴낸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발행인 법륜

편집인 권영선

편집교정 강주희, 구자웅, 박영숙, 박정태, 서민정, 송치현,
유미경, 이원경, 정윤미, 현희련 (가나다순)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우일빌딩 5층 (06640)

연락처 Tel 02-581-0581 / Fax 02-581-4077 / E-mail staff@pf.or.kr

홈페이지 www.pf.or.kr

